

##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에 대한 제언 Suggestions for Training Program Geopark Commentator

김태형<sup>1,\*</sup> · 임종덕<sup>1</sup> · 김경수<sup>2</sup>

Tae Hyeon Kim<sup>1,\*</sup> · Jong-Deock Lim<sup>1</sup> · Kyung Soo Kim<sup>2</sup>

<sup>1</sup>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geodiversity@naver.com ·

<sup>2</sup>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우리나라는 2012년 1월 29일에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질공원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질, 생물, 고고, 역사 및 문화 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과 관광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질공원이 추구하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질 공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요소인 자연경관(지질, 지형)을 바탕으로 인류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생물, 역사, 문화, 고고) 등을 일반 대중들에게 지구과학적 지식과 정보, 환경의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 대중들에게 지구과학적 지식과 정보, 환경의식을 전달하는 주체는 바로 ‘지질공원 해설사’이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때 일반 대중들에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지질 공원의 해설, 소양 교육과 전문 교육, 현장 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적 측면과 교육 참가자의 자격 요건과 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검토결과, 소양 교육과 전문 교육의 교육 과정에서 교육 분야의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며, 전문 교육과정의 「지질공원의 해설 실무」교육 분야 중 ‘지질 명소 답사 및 해설’은 각 지역별 지구과학적 지질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과정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부터 지구과학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반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참가자의 자격 요건과 운영에서도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할 수 있는 교수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효율적인 교육방법이 이루어질 때 비로써,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각 지역 사회의 지질공원과 관련된 인력자원(퇴임교사, 초·중·등 예비교사 및 관련 대학생, 현 교사)을 활용함으로써, 각 지질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확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교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다각적 측면에서 대안적 방안이 모색될 경우, 향후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